



사진 앞줄 좌로부터 강성중씨, 설성수과장, 이해영씨, 최영재씨,
뒷줄 좌로부터 강선규씨, 심우철씨, 조세원씨, 김영록씨



전북지부 사업과

교육과 문화의 도시 이곳 전주는 유서깊은 역사의 고도, 도시이기도 한데…… 때 답지 않게 내리는 겨울비 속을 달리는 자동차들의 경적이 가련산에 부딪혀 더큰 소리를 토해내곤 하는 저녘 무렵이다.

오늘도 순회 가검물 수집을 다녀온 직원들은 제각기 맡은 업무의 보고서를 작성, 일일사업 실적을 내느라 분주하다. 88년도 검사사업 목표 달성의 일환으로 18개 시군에 순회 수행하게될 검진사업의 중추적인 소임을 맡은 우리 사업과 직원들은 우리에

게 주어진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이 시간에도 모두 머리를 하나로 모두어 가고 있다.

정직과 성실과 책임을 근무지침으로 일하면서 묵묵히 사업과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지부의 대들보이기도 한 설성수 과장님은 20여년 동안의 우리 협회를 보여주고 있는 산 증인으로서 그 누구 보다는 이른 아침에 출근하여 숙직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나면 어제의 사업추진 실적내용을 재평가하시고 오늘의 사업추진 일과표를 점검

하시면서도 소숫점 이하까지도 눈여겨 보신다. 자상하시고 부지런하신 과장님께서서는 가정이 화평한 사람이 직장의 일도 잘한다고 우리에게 말씀 하시면서도 신언서판(身言書判)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계신다. 또 전북지부가 최우수 지부의 월계관을 따 내는데 일등 공신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전주시내가 아직 낯설기만한 필자 심우철 계장은 사업과 업무에 대한 추진방향 모색에 여념이 없다. 사업과의 홍일점으로 터춤투대감 격인 이해영 주임의 자기가 맡은 업무를 척척 알아서 처리하는 모습은 가히 여장부 이기도하다. 특히 기생충 관리 업무를 주로 담당하지만 가끔 성인병 가검물 채취 홍보 반에도 편승하여 전북도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정열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나이답지 않은 거구의 강선규 주임은 패기와 지혜를 모아 건강관리 홍보 추진에 온 정열을 다한다. 또 동료들 사이에도 친목에 능숙한 솜씨를 발휘하는 일꾼중의 일꾼이다. 남원의 사나이 최영재 서기는 아들을 얻어 득남주를 톡톡히 내겠다 한다. 사업일보가 맞지 않으면 우선 짜증부터 내버리는 남자. 진짜 사나이가 요즘은 사업일보와 검사결과 통보서를 작성하는데, 그렇게 바쁜나날은 태어나서 처음이라나…….

꺼부정한 키의 사나이 김영록군은 날도

안받은 혼인 준비로 요사이 바쁜 일과를 보낸다. 또 순회 홍보 검진반의 차량 운전원도 담당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접수까지도 맡아 버린다. 스트레스 해소에는 잔을 들어 버려야 직성이 풀린다는 강종성 의무기록원의, 맑은 검사결과 성적서도 계능감 추듯 하는 몽똥한 손놀림에는 저절로 감탄의 소리가 나온다. 시작이 반 이라고 하는 고사가 있듯이 88년도 1,807천명의 검사사업 목표를 향해 뛰지도 어언 이십여일이 지나간다. 우리 사업과는 88년도에도 최우수지부라는 목표를 향해 오늘도 전진, 내일도 전진할 것이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업무 이지만은 신속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다시 확인하고 추진하여 맡은 소임을 다해내고야 말것이다. 겨울이 가고 춘삼월이 오면 집단 기생충 관리사업이 활성화되고 10여명 통계원들의 불펜 놀림은 장비의 현장을 무색하게 할 것이다. 내일도 진암군과 임실군 영세민들의 성인병 사업 홍보와 가검물 채취를 위해 09:00시부터 정문을 나서야 하고 무주군에 해당되는 팀은 06:30분에 출발하여야 할 것 같다. 우리 사업과 직원들이 재미가 되어 날로 새로와져 가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의 원인이 있겠지만은 남상도 사무국장님이 초석이라 하겠다.

(글·심우철 계장)

• 건강 표어 •

한번검사 일년건강 정기검사 평생건강

• 한국건강관리협회 •